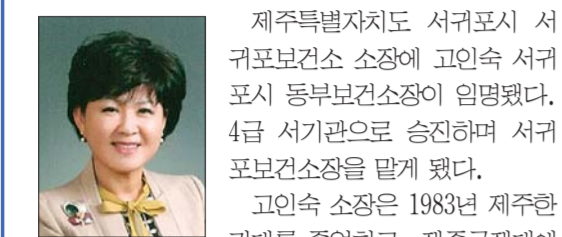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에 간호사 보건소장 4명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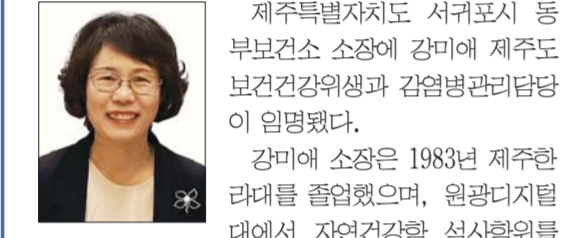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이 4명 임명됐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고인숙 소장,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강미애 소장,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오재복 소장, 제주시 동부보건소 오순옥 소장이 8월 5일자로 발령받았다. 이로써 8월 현재 전국의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은 모두 30명으로 늘어났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고인숙 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장에 고인숙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이 임명됐다.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서귀포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고인숙 소장은 1983년 제주한라대를 졸업하고, 제주국제대학에서 스포츠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공직에 입문해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계장, 제주도 건강관리담당·질병관리담당·이동보육담당,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등을 지냈다. 2007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대통령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현재 제주도간호사회 서귀포시간호봉사단장을 맡고 있으며, 제주도보건간호사회장을 역임했다. 고인숙 소장은 “공직생활을 시작한 서귀포보건소의 소장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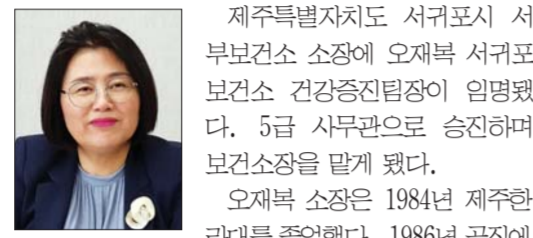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강미애 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장에 강미애 제주도 보건간호위생과 감염병관리담당관이 임명됐다. 강미애 소장은 1983년 제주한라대를 졸업했으며, 원광디지털대에서 자연건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공직에 입문해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제주도 보건간호위생과 감염병관리담당 등을 지냈다. 2018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한결핵협회장상 등을 받았다. 강미애 소장은 “30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서귀포시 동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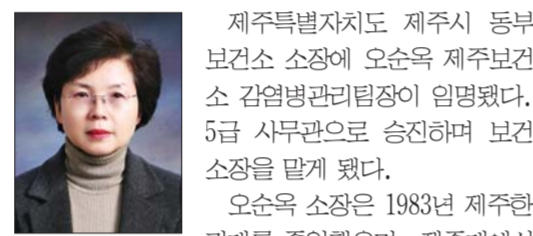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오재복 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장에 오재복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이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오재복 소장은 1984년 제주한라대를 졸업했다. 1986년 공직에 입문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담당,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등을 지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오재복 소장은 “현장중심의 보건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제주시 동부보건소 오순옥 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장에 오순옥 제주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이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오순옥 소장은 1983년 제주한라대를 졸업했으며, 제주대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제주시 동부보건소 우도보건지소담당·방문간호담당,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장·방문간호팀장·감염병관리팀장 등을 지냈다. 조산사 면허 등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오순옥 소장은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삼맛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보건사업 참여를 유도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 의약단체와 해외의료봉사활동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는 경기도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필리핀 의료 소외지역 구호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경기도의료봉사단은 경기도간호사회를 비롯해 경기도 내 5개 의약단체와 치과위생사회 및 일반 봉사자 등 총 41명 규모로 구성됐다. 경기도간호사회에서 파견된 8명의 간호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치과·한방과 분야에서 진료지원을 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의료용품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필리핀 포락시의 빈민지역인 아누나스 다리 밑 마을, 고산지대 원주민 마을인 카미야스 산족마을, 방갈바드 어촌마을을 방문해 총 1800여명을 진료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제주도간호사회 간호역량강화교육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송월숙)는 ‘2019년 간호역량강화교육’을 지난날 27일 제주벤처마루 백록담홀에서 개최했다. 송월숙 회장은 “오늘의 강의가 간호업무에 지친 회원들이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현대비스병원 온자 감염관리실장, SCI급 저널 논문 게재



현대비스병원 온자 감염관리실장의 연구논문이 SCI급 저널인 미국감염관리저널(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에 게재됐다. 지난 7월 16일 온라인저널에 올랐으며, 11월 오프라인 저널로 발간될 예정이다. 논문명은 ‘대한민국 병원종별 간호사의 표준주의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중증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표준주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예방 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 등 감염관리 정책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진행됐다. **이진숙 기자 jilee@**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백양 이영복 기념사업 위해 기부

하영수 이화여대 명예교수, 간협에 장학기금 쾌척

하영수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대한간호협회에 운영하고 있는 ‘백양 이영복 기념사업’에 써달라며 장학기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 이영복 선생은 1917년 출생해 1978년 소천했다. 세브란스간호학교(연세대 간호대학 전신)를 졸업했으며, 이화여대 초대 간호학과 과장 및 간호대학장을 지내며 후학양성에 힘썼다. 제8대 및 제9대 대한간호협회장(1962~1964년)을 지냈으며, 1952~1973년 협회 임원으로 활약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했다. 특히 1972년 대한간호협회 제39회 대의원총회에서 한국 간호사의 윤리강령을 통과시키고,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썼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영복 선생 유족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백양 이영복기념사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에서 간호행정분야를 전공하는 간호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기금을 쾌척한 하영수 명예교수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영복 선생님을 위한 마음을 담아 장학기금을 간호협회에 기부했다”면서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지난 시간들이 소중한 아름다운 인생의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영수 명예교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대한간호학회(현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이사, 국제간호협회의 전문직간호사업위원회(ICN PSC) 위원 등을 지냈다. **정규국 기자 kschung@**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전국의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펼친다. 조사는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기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를 토대로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국 255개 지역이 참여하며,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했다. 조사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올해 조사결과는 내년 3월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

영남대병원 ‘안전보건 다트를 던져라!’ 이벤트

영남대병원(병원장 김성호)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다트를 던져라! 100인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한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영남대병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받은 상금을 뜻깊게 사용하고자 기획했다. 이벤트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존중 일터 만들기’ 주제로 제작된 다트판에 다트를 던진 후 해당 영역의 OX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트 던지기에 참여한 선착순 10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1만원이 상품으로 지급됐다. **이진숙 기자 jilee@**

전남대병원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운영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은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신속대응시스템(Rapid Response System·RRS)을 8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원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시범사업기관이다. 신속대응팀은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전문의 1명과 당직전문의 6명, 전담간호사 9명으로 구성됐다. 비디오후두경·이동식 인공호흡기·이동식 초음파·간이진단검사기 등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위급상황의 입원환자를 신속 조치함으로써 CPR 발생, 사망환자, 재입원율, 의료사고 등을 감소시켜 환자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유주 기자 yjchoi@**

서울성모병원 4년 연속 JCI 인증 성공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병원장 김용식)은 4년 연속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에 성공했다. JCI 전문조사위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25일 JCI측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통해 4차 인증 획득을 통보받았다. 진료시스템과 함께 수련교육병원 및 임상연구분야의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았으며, 2022년 7월 19일까지 JCI 인증이 유효하다. 김용식 병원장은 “JCI 인증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환자안전행사 ‘스피크 업’

한림대한강성심병원(병원장 전욱)은 지난날 환자안전주간을 선포하고, ‘스피크 업(Speak UP)’ 행사를 개최했다. 스피크 업 행사는 환자안전에 대한 고교과외의 소통, 환자안전에 대한 형성을 위해 시행됐다.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간호부 등이 주관했다. 사진 전시회와 환자안전 포드존을 운영하고, 순위생 체험행사 및 퀴즈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에 대해 알렸다. **최유주 기자 yjchoi@**

화순전남대병원 ‘역사홍보존’ 오픈

지난 역사 통찰하며 새로운 미래로 ... 영상 디스플레이 총길이 6m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 신)은 올해 개원 15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발자취와 성과, 미래의 비전 등을 담은 ‘역사홍보존’을 마련했다. 원내 1층 벽면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주제로 역사홍보존을 설치했다. 기념공간은 55인치 영상 디스플레이 10개로 구성돼 있다. 높이 1.4m, 총길이 6m에 달한다. 수목민 콘텐츠는 총 7분20초 분량의 동영상과 8분 가량의 사진 이미지들이다. 동영상에는 화순전남대병원이 글로벌 병원으로 발돋움해나가는 과정을 수록했다. 사진이미지를 통해 2004년 개원 후 현재까지의 주요행사와 성과를 담았다. 정 신 병원장은 “이 역사홍보존에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향하는 발전상과 성과들이 더욱 풍성하게 담겨지길 바란다”면서 “병원의 과거와 현재를 통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유주 기자 yjchoi@**

특자주소 변경 ☎ 02)2260-2571